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91

10

세상의 찬란한 변화

CHANGE

THEME 1

변화

10월호의 키워드는 'Change'입니다.
여러분은 'Change'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테마는 '변화'에 대해 탐구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THEME 2

혁신

두 번째 테마는 '혁신'입니다. 혁신이란 익숙한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차세대 물관리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혁신입니다.

변화



6. 월간 수토픽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10. Gallery

변화하는
계절을 건너며

14. Theme Road

변화의 물결 속
새로운 서사를 꿈꾸는 경주

20. Travel Guide

밤의 매력을 지닌 곳
야행 명소

22. Voice on Road

서점 속 소소하고 밀밀한 온기
김지혜 작가

26. The Kit

아이템의 변신은 어디까지?
패션 스타일링 팁

28. Taste Note

시대의 변화가 담긴
추석 음식 이야기

혁신



30. Theme Prism

나를 바꾸는 Change

32. Opinion

혁신의 승리는
'유용한 창의성'

34. Special with

맑은 물로 열어가는 희망의 여정
2025 K-water 필리핀 해외사회공헌활동

40. 수타백스가 간다

포항의 심장을 뛰게 하는
포항권지사

44. Water & Tech

AI 시대의 물관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48. Light on

탄금호의 물길을 가르는 열정의 레이스
제22회 물사랑 전국조정대회

50. Newsroom

54. Monthly Issue

강이 마르면, 떠난다
강릉에서 마주한 기후붕괴

56. Water Tales

이집트의 심장
나일강에 깃든 오시리스의 숨결

58. #알고리즘

59. 이벤트 안내

60. 방울사서함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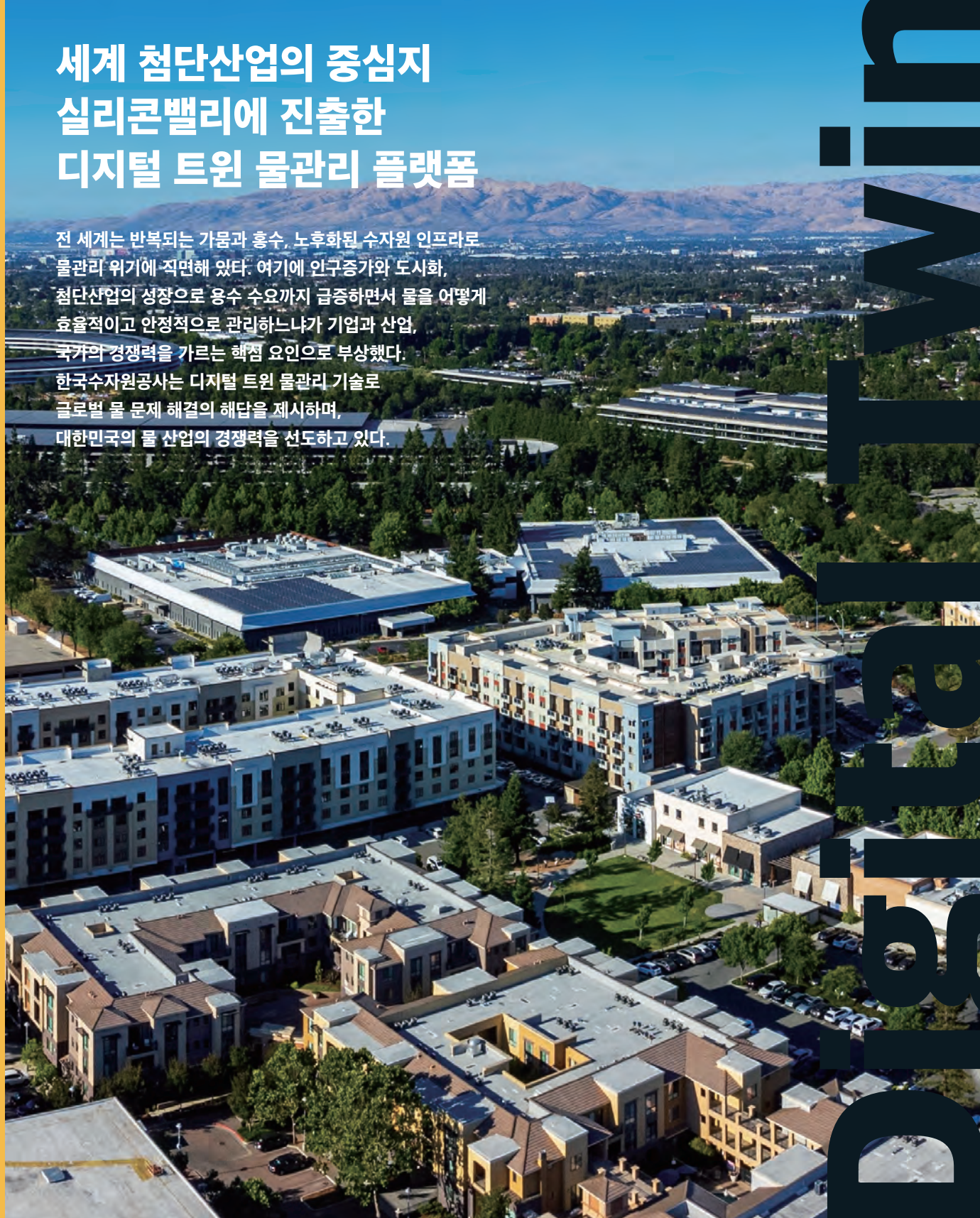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 통권 691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공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전 세계는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노후화된 수자원 인프라로 물관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인구증가와 도시화,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용수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물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기업과 산업, 국가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술로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의 해답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물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리콘밸리 물관리 협력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물관리 기관인 밸리워터(Santa Clara Valley Water District)와 '디지털 트윈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밸리워터가 관리하는 과달루페 유역의 댐·정수장·관로 등 주요 물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수자원·수도 통합형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밸리워터는 세계 IT 산업의 중심인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약 220만 명에게 용수를 공급하고 10개의 댐을 운영하며 홍수 예방, 하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가뭄, 극한 홍수 등 물재해 대응 및 AI 등 첨단산업 급성장으로 실리콘밸리의 용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밸리워터는 합리적인 용수 배분을 위해 디지털 트윈,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밸리워터는 그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과거 홍수기에 적용한 실제 사례 시연과 미국 현지 시설조사, 세부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협약체결이 성사되었다. 특히, 밸리워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면서, 물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고 실시간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제 운영 중이라는 점이 다른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들에 비해 경쟁우위로 작용했다.



과달루페 유역 지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Digital GARAM+'는 실제 수자원 환경을 디지털 가상공간에 구현해 강수량, 하천 수위, 댐 운영현황 등 유역 내의 모든 물관리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분석, 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를 통해 물 관련 데이터와 기상 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분석 결과를 제공해 최적의 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Digital GARAM+는 2021년 섬진강 유역에 시범 도입된 이후 2024년 전국 56개 댐과 보시설에 확대, 적용되어 운영 중이다. 실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7월,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댐별 강수량·방류량에 따른 48개 운영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하천 하류 영향을 분석, 수문 방류 없이 유입강수량을 전량 저류하며 홍수에 대응한 바 있다.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K-물관리 기술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술은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보츠와나, 일본 등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는 팀 네이버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인 제다시의 홍수 대응을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제다시는 건조한 사막 기후임에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하루 만에 연평균 강우량을 웃도는 집중호우가 잇따르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홍수로 인한 하천범람, 도시 침수 등 물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제다시 사업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현지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으로 향후 수도 메카와 메디나 등 타 도시로의 사업 확장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일본 아마가타현 나가이시와 디지털 트윈 기술과 드론 기반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드론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위험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 현장 정보와 기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홍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술은 중동, 아프리카를 넘어 전통적 물관리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과 미국에서도 반복되는 물 재해와 상수원 부족 등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으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입지를 확대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물관리 기술

국제 물산업 전문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는 2030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을 좌우할 메가트렌드로 '물 안보'를 지목하였으며, 세계 워터테크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5,080조원에서 2034년 1경 6,73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후 위기 심화, 인구증가,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물이 단순한 공공재를 넘어 국가의 산업·경제·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자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운영과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물 재이용·물순환·스마트 워터 등 워터테크를 차세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수자원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10년간 워터테크 기반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물산업 전반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댐이나 발전시설 등 인프라 건설 중심의 사업

에서 벗어나, 기존 사업에 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혁신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술 외에도 AI 기반의 정수처리 공정 자율운영 기술인 'AI 정수장'은 인도네시아의 신행정수도 누산타라의 상수도 인프라 구축과 베트남 롱안성 상수도 운영관리 사업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oT, AI 기술을 결합하여 누수와 수질 이상 등에 대응하는 최적 관망관리시스템인 '스마트 관망관리(SWNM)' 기술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지에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관리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고도화해 해외 물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 산업을 새로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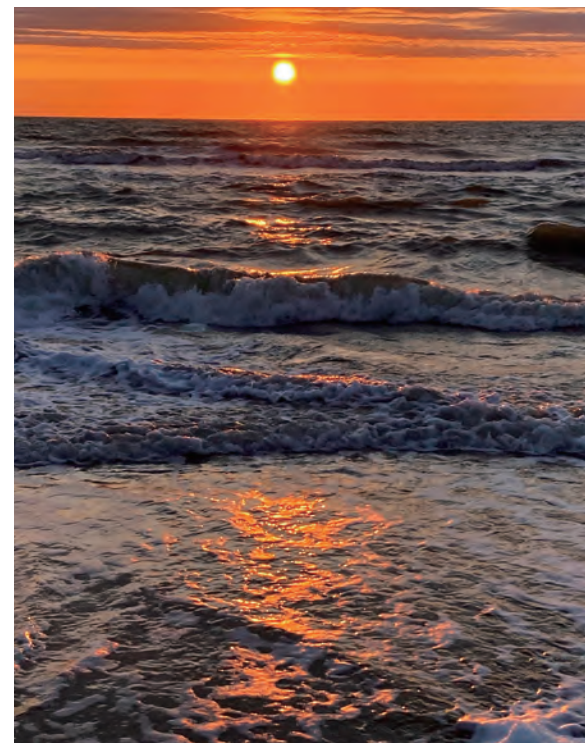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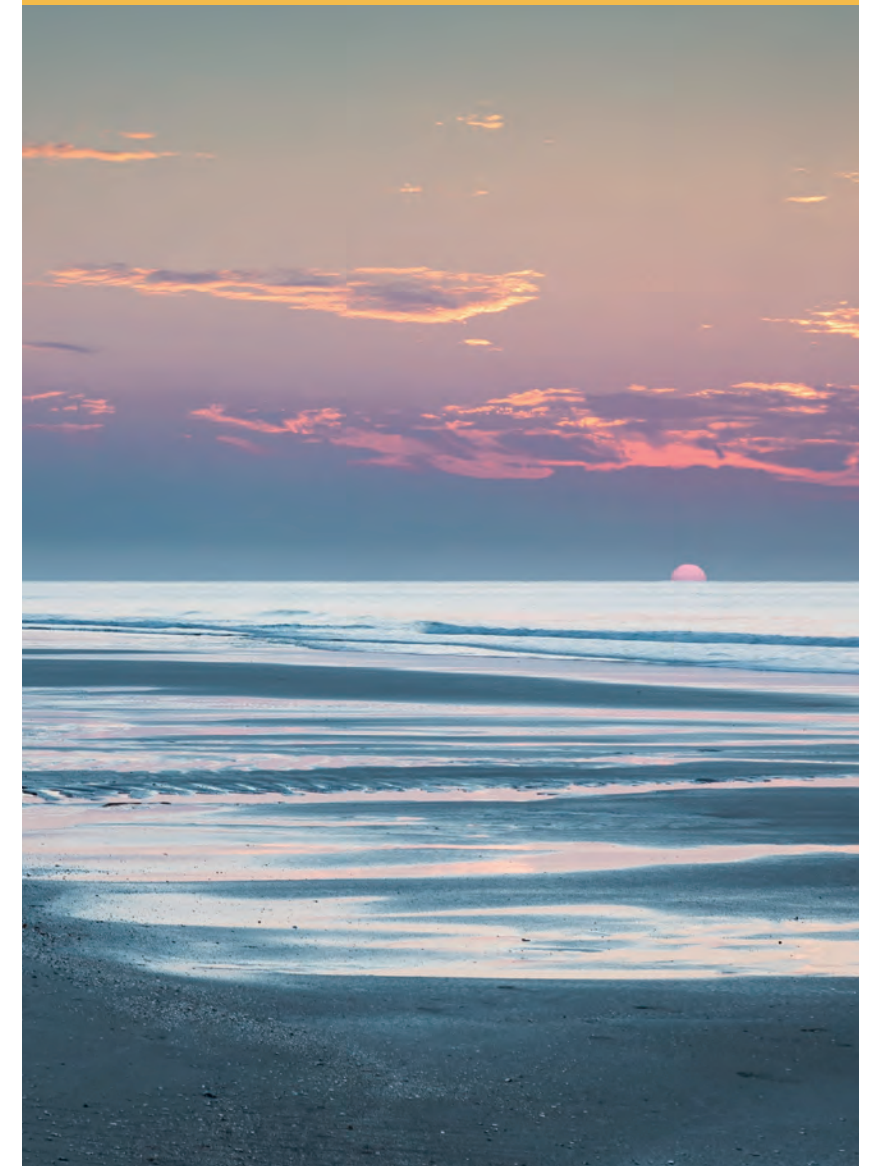
변화하는 계절을 건너며

조용히 움트는 새싹이
기울어진 햇살 아래 길어진 그림자가
가을을 실어 오는 바람이
우리를 계절의 경계선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매미 소리가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소리가 찾아오고
이슬 맺힌 풀냄새에서
단풍의 메마른 냄새가 느껴질 거예요.



CHANGE



변화는 살며시 시작되어
단숨에 새로운 길목에 우리를 세워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곧 변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우리를 또 다른 이야기로 이끕니다.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In Days of Change



Theme Road

글 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변화의
물결
속

경



새로운
서사를
꿈꾸는

주

시간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풍경 속에서 발견하는 오늘의 의미, 그리고 가장 트렌디한 공간에서 문득 마주치는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면 어떨까? 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곁에서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경주의 서사 속으로 떠나보자.





시간이 빚어낸 보물, 경주의 변치 않는 풍경

경주 여행의 첫걸음은 언제나 그렇듯, 아득한 시간의 흔적을 더듬는 일에서 시작된다. 익숙하기에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를 이 오래된 공간들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대릉원과 월성 사이에 자리한 계림은 ‘닭이 운 수풀’이라 불리는 곳으로 신라의 첫 숨결이 깃든 은밀한 숲이다. 한때 계림은 신라의 국호가 되기도 했으며,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의 탄생 설화를 품고 있다. 천 년 이상 생명을 이어 온 계림은 경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곳 중 한 곳이다. 계림은 한 낮에도 어스름한 기운이 감돌 정도로 숲이 깊고 울창하다. 하늘을 향해 구불구불 힘차게 뻗은 고목들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을 맞으며 자박자박 느린 걸음으로 걷다 보면 수백 년 된 고목들이 하늘을 가린 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때 마주한 계림의 모습은 마치 신화의 한복판에 들어선 듯한 착각에 빠지는데 그 재미가 쏠쏠하다.

계림 끝자락에 이르면 월정교를 마주한 교촌마을에 닿는다. 이 마을은 경주 최부자택을 중심으로 향교와 전통 한옥이 어우러져 옛 모습을 지키고 있다. 경주 최부자택으로 알려진 경주 최씨의 종가는 1700년경에 지어졌다고 전한다. 최부자택은 조선

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흥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등 나눔과 상생의 철학이 고스란히 밴 공간이다.

교촌마을과 맞닿아 흐르는 남천에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월정교가 있다. 남천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9년(760년)에 지었다고 한다. 월정교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

계림

A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

교촌마을

A 경상북도 경주시 교촌길 39-2

월정교

A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74

불국사

A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석굴암

A 경상북도 경주시 석굴로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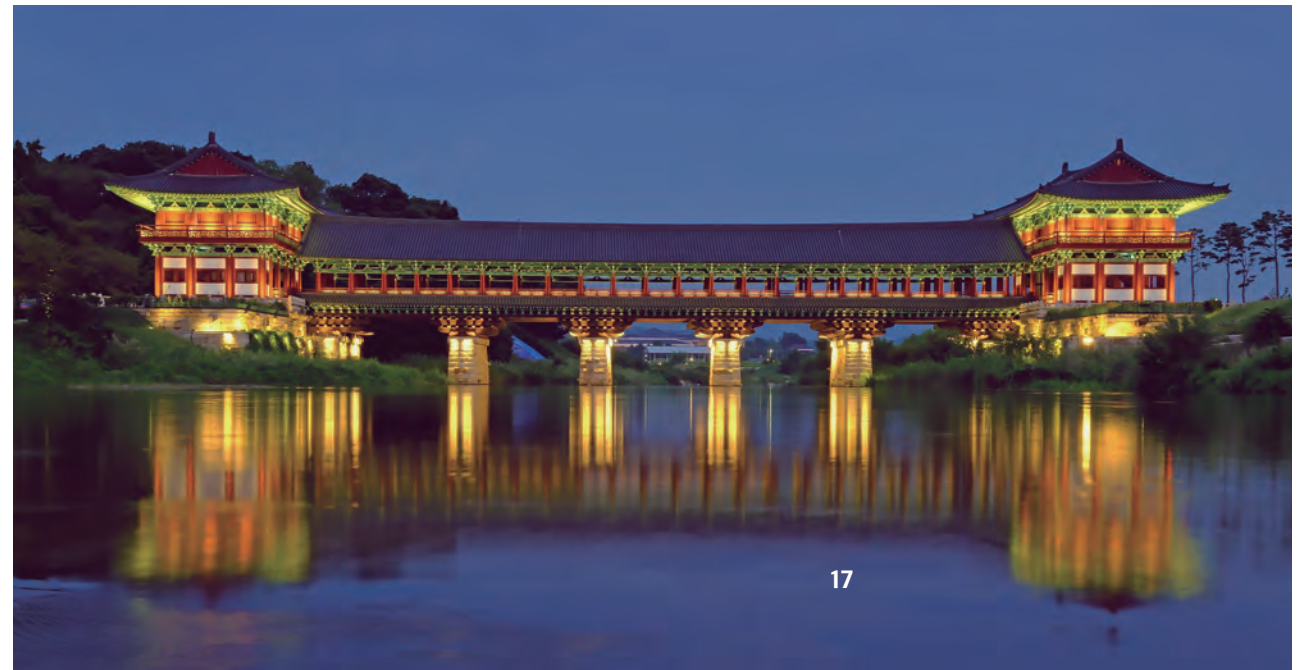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 특히 양 끝에 자리한 문루는 궁궐 일부가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시선을 압도한다. 하지만 화려함은 오래 가지 못한 채 조선시대에 유실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2018년 4월에 복원됐다.

월정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해가 진 뒤에 드러난다. 은은한 조명이 다리와 문루를 비추면, 남천 위로 그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돼 마치 신라의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누각에 서면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교촌마을의 야경이 한눈에 담긴다. 월정교의 복원은 단지 사라진 다리를 되살린 것을 넘어선다. 1,300년 전 신라인들이 즐겼을 풍경을 오늘날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경주를 찾는 많은 여행객 가운데 학생을 빼놓을 수 없다. 경주를 가리켜 ‘대한민국 수학여행 1번지’라 부르는 말이 절대 헛말이 아니다. 학생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자박자박 경내를 걸으며 빛바랜 단청과 문살을 바라보고 ‘고색창연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신라인들이 꿈꾸던 불국정토가 여기서 실현됐구나’ 하고 감탄한다. 구절양장 같은 구불구불한 길을 달려 이윽고 도착한 석굴암은 아쉽게도 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그래서 더 간절한 시선으로 본존불과 여러 부조물을 꼼꼼히 챙겨보게 된다. 흔히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는데, 막상 사진을 남길 수 없으니 매의 눈으로 신라 예술의 극치를 한 땀 한 땀 기억 속에 저장한다.



© 경북나드리



오늘의 감각으로 역사를 즐기다, 경주의 새로운 얼굴

경주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역사의 깊은 향기는 그대로 간직한 채, 오늘의 감각과 언어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국립경주박물관 내에 있는 신라천년서고가 바로 그런 곳이다. 원래 이곳은 국립경주박물관이 수장고로 사용하던 건물이었으나 2022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했다. 국내외 전시 도록은 물론 신라, 경주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가 비치돼 있다. 열람실은 전통 건축의 목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천장이 인상적이다. 또한 지혜의 등불을 밝히듯 석등으로 공간을 마무리해 담백하면서도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시끌벅적한 관광지를 잠시 벗어나, 차분하게 여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을 때 신라천년서고는 최고의 쉼터이자 배움터가 되어줄 것이다.

대릉원 담장과 나란히 이어진 황리단길도 경주의 새로운 얼굴이다. 한옥 스타일의 카페나 식당, 편집숍, 사진관 등이 하나둘씩 문을 열면서 경주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되었다. 5년 이상 황리단길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들도 있다. 흑백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대릉원사진관’, 경주에서만 살 수 있는 선물을 파는 ‘배리삼릉공원’,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주화를 본떠 만든 ‘십원빵’, 고양이가 손님을 맞는 ‘고도 커피’ 등이 그곳이다. 무뚝뚝한 경상도 특유의 느낌에 곰살가운 면이 더해져 활기가 넘치는 골목이다.



국립경주박물관

A 경상북도 경주시 일성로 186

황리단길

A 경상북도 경주시 포석로 1080

우양미술관

A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84-7

우양미술관은 경주가 품은 또 다른 ‘새로움’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고미술과 유물이 가득한 도시에서 만나는 현대미술은 낯설면서도 신선한 자극을 준다.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부터 실험적인 신진 작가들의 전시까지, 다채로운 현대미술의 향연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사유의 시간을 선물한다. 우양미술관은 전통적인 경주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대담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여 왔다. 특히 APEC 경주 개최를 기념해 열리는 백남준 특별전 《Humanity in the Circuits》과 가나 출신 작가 아모아코 보아포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 《I Have Been Here Before》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경주 여행을 통해 새삼 느낀 게 있다. 과거는 현재의 풍경 속에서 되살아나고, 현재는 과거라는 든든한 뿌리 위에서 더욱 다채롭게 피어난다는 것이다. 경주는 박물관에 갇힌 과거형의 도시가 아니다. 오래된 가치를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가는 ‘현재진행형’의 도시다. 이번 가을, 익숙하지만 매순간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경주에서, ‘오래된 새로움’을 발견해 보길 추천한다.



밤의 매력을 지닌 곳

진주 남강유등축제

10월의 밤이 되면 진주성과 진주 남강을 따라 불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강에 등을 띄우는 행사로, 임진왜란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축제의 개막식은 순국선열께 축제의 시작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하여 진주시 읍·면·동의 상징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거리행렬로 이어져 축제에 전시된 모든 등에 불을 밝히는 초혼점등으로 끝이 난다. 이후에도 수상 불꽃놀이, 드론 라이트 쇼, 다양한 테마의 유등 전시, 부교 건너기 체험, 소망등 달기 체험,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돼 축제 기간 중 언제 방문해도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체험을 통해 직접 유등을 강 위에 띄워 보내며 추억 한 페이지를 장식해볼 수 있다. 점등이 시작되는 18시 이후에 방문하면 어두운 수면 위로 일렁이는 불빛을 볼 수 있는데, 손을 모으고 올해의 평탄한 마무리와 다음 해의 행복한 시작을 기원하면 더없이 충만한 가을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T 10. 4.(토)~10. 19.(일)
A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 진주성 일대
F 무료

밤에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지닌 공간이 있다. 화사한 햇빛을 받을 때의 정갈하고 다정한 느낌과는 다른 모습, 가을밤을 즐기러 떠나 보자.



© 경북나드리

안동 하회 선유줄불놀이

안동 하회마을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다.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만 열리는 선유줄불놀이는 숯을 넣은 한지 봉지를 줄에 매단 뒤 불을 붙여 불꽃을 보는 축제이다. 높은 곳에 매달린 줄에서 훑날리며 떨어지는 불꽃은 다른 세상에 온 듯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선비들의 뱃놀이 행사가 전승된 줄불놀이 외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달걀 껍질에 기름과 심지를 넣은 뒤 불을 붙여 물에 띄우는 달걀불, 불붙인 숯갑단을 부용대 위에서 떨어뜨리는 낙화, 배 위에서 펼치는 노래와 연주 공연을 함께 볼 수 있어 풍성한 즐거움이 가득하다. 그 외에도 13~16시에는 소원 숯봉지 만들기, 숯봉지에 소원띠지 달기, 달걀불에 소원 쓰기 등 참여 행사가 진행되고, 본 행사 직전에는 명인의 장승 제작 공연과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이 열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틈이 없다.

T 6. 14.(토)~11. 8.(토)
A 경상북도 안동시 동천면 전서로 186, 안동하회마을
F 10,000원(사전 예매)

수원 화성행궁 달빛화담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은 수원화성은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전통 건축물이다. 낮의 웅장함과 푸른 들판도 명물이지만 수원화성의 진가는 밤의 어둠이 지닌 신비한 매력이 고궁과 만났을 때 극대화된다. 경복궁의 '부궁'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던 만큼 수원 화성행궁은 그 어느 행궁보다 크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창룡문, 화서문, 팔달문, 장안문의 4개의 문루를 둘러보는 것도 좋고, 달빛화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것도 탁월한 선택이다. 궁궐을 비추는 달빛을 느낄 수 있는 정문 신평루의 '달빛의 초대', 미디어아트 전시가 이루어지는 '달빛마루',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마당', 다양한 설치물과 조명으로 구성된 포토존 '꽃빛화원', 야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정원 산책',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태평성대'까지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진행되는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실제 혜경궁 홍씨가 진찬연 음식을 준비했던 '별주'에서 진행이 되는데, 궁중다과를 시식하며 작은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T 5. 3.(토)~11. 2.(일), 금~일요일 운영
A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화성행궁
F 2,000원(혜경궁 궁중다과 체험 별도)



서울 덕수궁 밤의 석조전

덕수궁 산책길은 함녕전, 석어당, 중화전까지 이어진다. 고즈넉한 길 끝에는 어둠에 물든 석조전이 은은한 불빛을 받고 있다. 고궁의 역사와 건축에 대한 전문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고종의 침실을 비롯해 황후의 거실과 침실까지 대한 제국 황실의 일원이 실제로 사용했던 공간을 둘러봄으로써 책으로 배웠던 역사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후 2층의 테라스 카페에 앉아 클래식 연주를 들으며 디저트와 고종이 즐겼던 가배(커피)를 먹는다. 집권길로 이동한 후에는 1910년 대한제국 황실의 이야기와 고종, 순종, 순정효황후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을 관람하는데, 그들이 실제 생활했던 공간을 보고 난 후여서일까 어쩔지 몽클한 감정이 솟는다. 밤의 석조전은 2023년부터 반기별로 운영되며, 사전 예매가 필수이니 관심이 있다면 예매를 서두르자.

T 9. 10.(수)~10. 26.(일)
A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덕수궁
F 26,000원(사전 예매)





‘소소밀밀’이란 여백이 있는 곳은
더욱 여백을 주고, 밀도를 높여야 하는
곳에는 더욱 뽁뽁하게 그려내는 동양화
기법이다. 대릉원 돌담길에 위치한
그림책서점 ‘소소밀밀’에서 김지혜 작가는
책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 있다.
소소하지만 밀밀하게.

김지혜 작가

서점 속 소소하고 밀밀한 온기



‘경주’라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다

‘황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더욱 익숙한 ‘경주 황남동’에는 한옥 형태의 식당과 카페, 숭 등이 많다. 그곳에 위치한 ‘소소밀밀’은 글을 쓰는 김지혜 작가와 그림을 그리는 구서보 작가 부부의 작업실이자 그림책서점으로 10년째 황리단길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다.

그러나 ‘소소밀밀’이 있기 전까지 부부에게 경주는 아무런 연고가 없던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듯 김 작가에게도 경주는 ‘여행지’ 그뿐이었다. “서울에서 여느 직장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업무가 많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삶이요. 그러다 경주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첨성대 앞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대릉원에서 러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각자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삶은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전 아이에게 책 한 권 읽어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부부는 그 길로 서울의 모든 생활을 접고 경주로 내려왔다.



처음부터 책방을 열었던 건 아니다. 경주에서 2년간 회사생활을 하던 중 낯선 타향살이에 ‘다시 서울로 갈까?’ 고민하던 시기도 있었다. “연고가 없던 곳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로 갈 생각을 하면 또 숨이 턱 막혔어요. 마치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앞둔 군인처럼요.” 아이와 함께 책 읽는 시간,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시간 등 경주에서 비로소 느끼게 된 여유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다.

여태 치열하게 살았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문을 연 것이 그림책서점 소소밀밀이다. 왜 하필 ‘그림책’이냐고 묻는다면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란 다. 동화, 동시가 주는 몽글몽글한 감정이 그의 마음도 건드렸기 때문일 테다.

내가 지키고 싶은 풍경

처음 책방 문을 열었을 땐 자신의 작업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었으니, 손님은 하루에 세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책방 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이 손님이 몰렸다. 김 작가의 소박했던 마음과 달리 서점은 주말이면 하루 2천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됐다. “서점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내면의 고요가 일어나길 바랐는데, 그저 소란했던 분위기로 기억될까 봐 걱정됐어

요. 제가 원했던 서점의 풍경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소소밀밀은 책 선별부터 큐레이션, 포장까지 김 작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벽철 만큼 손님이 많을 때도 직원을 두지 않고 부부가 직접 모든 손님을 응대했다. 그만큼 온 마음을 기울인 공간이기에, 서점이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것이 못내 아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문턱을 높였다. 실내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방문객이 많을 때는 자체적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김 작가의 감도 높은 큐레이션 덕분에 손님들은 꾸준히 서점을 찾았다.

소소밀밀에는 주제별 서가나 신간 코너 등의 뚜렷한 분류가 없다. 그저 ‘아이들이 읽기 좋은 책’, ‘부모가 아이에게 읽어주면 좋은 책’, ‘어른을 위한 동화’ 등 독자의 다양한 눈높이를 고려하여 그의 안목대로 책을 선별·분류하고 있다. 또한, 한 책을 같은 자리에 오래 두지 않고 수시로 자리를 바꿔주고 있다. 책을 살아있는 생명처럼 돌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밖에 직접 쓰고 만든 책과 그들의 시선으로 그린 엽서를 선보이고 있다.

책으로 권하는 밀도 높은 따뜻함

서점 운영 10년 차. 기억에 남는 손님들도 많다. 오픈 때부터 해마다 조카의 생일 선물을 주문하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엄마

등에 업혀 왔던 아기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혼자 서점을 찾아오기도 한단다. 어르신 손님도 적지 않다. “그림책은 다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품고 있어요.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겹쳐 보이기도 하죠. 특히 할아버지·할머니, 혹은 이모·삼촌뻘의 2~30대 손님들이 와서 손주나 조카가 생각난다며 책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세상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책을 골라 드린답니다.”

현재 서악동에서 운영 중인 2호점은 북카페로 운영 중이다. 책 판매를 하지 않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과 책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밖에 그림책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점 앞마당에 부스를 마련해 북페어를 진행했고,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다비드 칼리를 초청해 북토크를 진행하며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경주는 이야기가 풍부한 도시예요. 그 고유의 문화를 잘 살리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확장해 가며,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고 싶어요.”

프랑스 파리의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영국 런던의 해처드 서점처럼 외국에는 100년을 훌쩍 넘긴 서점들이 많다. 그곳은 지역민들의 오랜 기억이자 안식처로 남아 있다. 김지혜 작가는 소소밀밀 또한 그 긴 세월을 함께 걷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서점을 지키고 싶어요. 지금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데려오는 날을 상상해요. 더 나중에는 ‘아줌마, 제 손주예요!’라며 찾아오기도 하겠죠? 그때 따뜻하게 반겨주고 싶어요.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템의 변신은 어디까지? 패션 스타일링 팁

The Kit
글. 편집실 그림. Rosy

머리핀 → 옷핀

품이 애매하게 큰 티셔츠나 니트를 입을 때 허리 옆이나 뒷부분을 살짝만 잡아주어도 핏이 살아난다. 이때 별다른 도구 없이도 머리핀이나 집게 핀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핏을 조절할 수 있다.

평범한 룩에 특별한 포인트를 더하고 싶다면? 한 가지 패션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작은 변화를 통해 특별함을 끌어낼 수 있는 스타일링 팁을 소개한다.



넥타이 → 벨트

목에만 두르던 넥타이를 허리춤에 묶으면 전혀 다른 느낌의 스타일링이 완성된다. 넥타이를 길게 늘어뜨리면 자유로운 보헤미안 같고, 단정하게 매듭지으면 세련되고 감각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무늬나 색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져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주기에 좋다.



스카프 → 헤어밴드

화려한 색감이나 패턴이 새겨진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별다른 장식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 스카프를 두건처럼 머리에 묶거나 머리끈처럼 사용하면 단숨에 경쾌한 룩이 연출된다. 소재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데, 레이스 소재 스카프는 특히 로맨틱한 분위기를 살리기에 좋다.



스카프 → 가방 스트랩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 챙기는 스카프를 가방에 넣어 다니기보다는 손잡이에 감아 가방끈처럼 연출할 수도 있고, 리본을 묶거나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다 해가 지고 공기가 쌀쌀해지면 가방에 묶어 두었던 스카프를 풀어 목에 두르면 된다.

브로치 → 슈즈 참

‘참’이란 장식 고리로 옷, 가방 등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액세서리다. 최근에는 참을 이용해 신발을 자기만의 개성대로 꾸미는 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귀여운 캐릭터부터 고급스러운 실버, 거친 메탈 장식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슈즈 참이 출시되어 이색적인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옷에 꽃는 브로치를 신발에 달면 투박했던 운동화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신발처럼 보일 수 있다. 서랍 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부모님의 브로치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방법

1. 다양한 콘텐츠 접하기

패션 센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이 보아야 한다. 완성도 높은 스타일링을 살펴볼 수 있는 쇼핑 앱과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등 사람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SNS를 탐험하며 패션의 트렌드를 파악하자.

2. 나의 취향 알아보기

쇼핑 앱, SNS 등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이나 활용할 만한 팁을 찾았다면 저장해 두자. 성별의 구분 없이 다양한 이미지를 저장한 뒤 이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 보면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알게 된다.

3. 오프라인 쇼핑하기

온라인을 통해 패션 감각을 익혔다면 직접 옷을 만져보고 입어볼 수 있는 오프라인 숍으로 향할 차례. 다양한 옷을 비교하며 몸에 대보고 입어보다 보면 내 몸에 잘 어울리는 색깔과 패턴, 핏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중요를 상징하는
전통 과자

한과

Taste Note

글. 조수빈

전통 디저트 한과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 자그마치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조선시대에 기록된 한과는 종류만 무려 254종에 이른다고 한다. 한과는 제례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과일이 없던 계절에 곡물의 가루와 꿀로 과일 형태를 만들어 마치 과일처럼 제사상에 올렸다고 한다. 과일이 없을 때 대체품으로 사용했기에 ‘조과’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과는 곡물가루나 과일, 식용 가능한 식물, 꿀, 엿 등을 섞어 만드는데, 특히 한 해 농사의 결실인 곡물은 풍요를, 꿀이나 엿 등 윤기를 내는 재료들은 화합을 상징했다고 한다. 시대가 흐르며 제례 음식에서 일상 속 디저트, 선물까지 자리를 넓히고 있는 한과는 그 변화 속에서도 ‘풍요’와 ‘화합’의 의미를 지켜가고 있다.

토란은 가을 무렵에 가장 맛있어 추석 즈음이면 밥상에 더욱 자주 오른다. 이 시기의 토란은 땅의 기운을 짙게 담고 있는 만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으로 통한다. 부드럽고 알이 동글동글해 ‘자손의 번창과 화목’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명절에 토란을 먹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중추절 구운 토란을 먹어야 한 해의 액운을 막을 수 있다는 풍습이 전해지고, 일본에서는 그해 수확한 토란을 하늘에 바치고 제례 음식으로 먹으며 보름달을 보았다고 한다. 이처럼 한때 밥상에 빠지지 않던 토란국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차례상의 풍습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토란국이 오르지 않는 곳도 많다.

자연의 힘을 담은 한 그릇

토란국

시대의 변화가 담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석 음식들은 시대에 따라 그 이름이나 모습, 의미가 조금씩 변해왔다고 한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 추석 음식들의 역사를 살펴보자.

대표적인 추석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멥쌀가루를 반죽해 깨나 콩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찐 떡을 말한다. 소나무의 솔잎을 깔고 만들어 ‘송편’이라 불리는데, 원래 ‘소나무 송(松)’, ‘떡 병(餅)’을 써 ‘송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우리는 추석에 먹는 송편을 꼭 ‘반달’ 모양으로 빚는데, 보름달이 아니라 하필 반달인 이유는 반달에는 ‘하루하루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 해 중 가장 풍요로운 날인 추석이지만 후에도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 선조들이 완벽 대신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다는 설과 백제시대 한 무당이 ‘둥근 달과 같다는 건 기운다는 것이며, 초승달과 같다는 건 점차 가득 차게 된다는 뜻’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후 차오르는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빚게 됐다는 설이 있다.

만월을 바라는 음식

송편

추석 음식 이야기

궁중 별미에서 명절 음식으로

잡채

잡채는 본래 명절이 아니라 임금의 잔치 음식에서 시작됐다.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 한 신하가 궁중 연회에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섞어 만든 음식을 바쳤는데, 광해군이 크게 흡족하며 궁중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러 가지 나물이 섞였다’라는 뜻의 ‘잡채(雜菜)’라는 이름 또한 여기서 비롯됐다. 당시 잡채는 손님 접대나 큰 행사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격식 있는 음식이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풍성함’과 ‘정성’을 상징하게 됐다. 다만, 이때의 잡채는 지금처럼 당면이 들어가지 않았다. 조선 말기 궁중 음식이 민가로 퍼지는 과정에서 감자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이 보급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잡채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됐다.

나를 바꾸는

Change

변화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의 방향을 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며 결국에는 우리를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삶을 뒤흔드는 힘은 무엇일까?

응답자 수 116명

‘Change’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48.7%

상황, 마음, 모습 등의
변화



43.5%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



5.2%

자리, 물건 등의
교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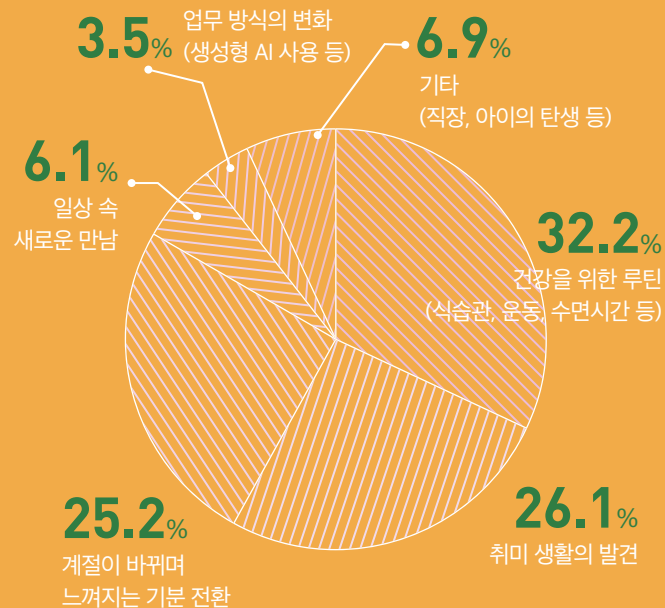
만화영화 속 주인공들의
변신



0.9%

기타
(거스름돈,
흐르는 강물 등)

요즘 내 일상에서 가장 신선한 변화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느낀다’라는 말을 체감했던 경험

업무 시작 전 하루 할 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분 정도 투자한 덕분에 업무 효율이 높아졌어요.

낙동강사업처 오주환

파마를 했더니 주변 반응이 매우 신선하더라고요. 덩달아 제 기분도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기획처 임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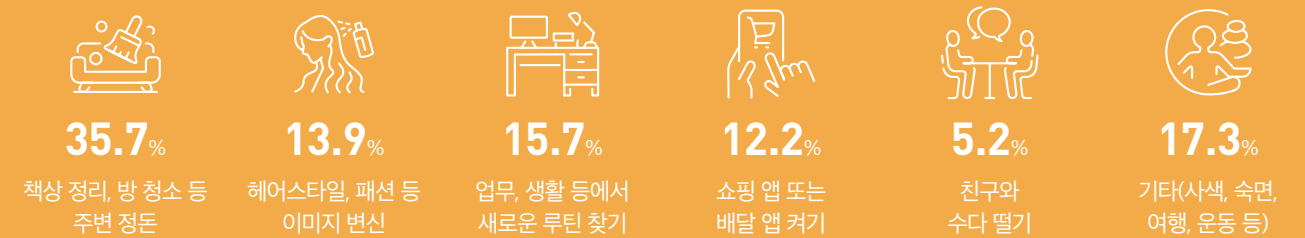
매일 두 잔씩 마시던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였더니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덩달아 아침 컨디션도 굿!

기술기획처 박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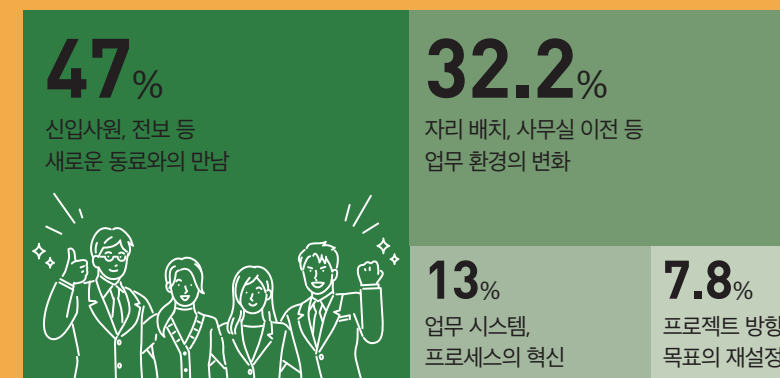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 대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동료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팀 성과가 경험에 있습니다.

구미사업단 한선호

나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이것부터 한다



업무 중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나에게 딱 한 가지, 바꿀 기회를 준다면?

이 얼굴은 이제 지겨워요. 잘생긴 사람의 삶이 궁금합니다.

재무관리처 윤정호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어요.

법무실 박가영

나이를 바꾸고 싶어요.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려 봐야 청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경북지역협력단 이혜린

애쓰다고 커지지 않지만, 기회가 온다면 키가 크고 싶어요.

공간경관처 김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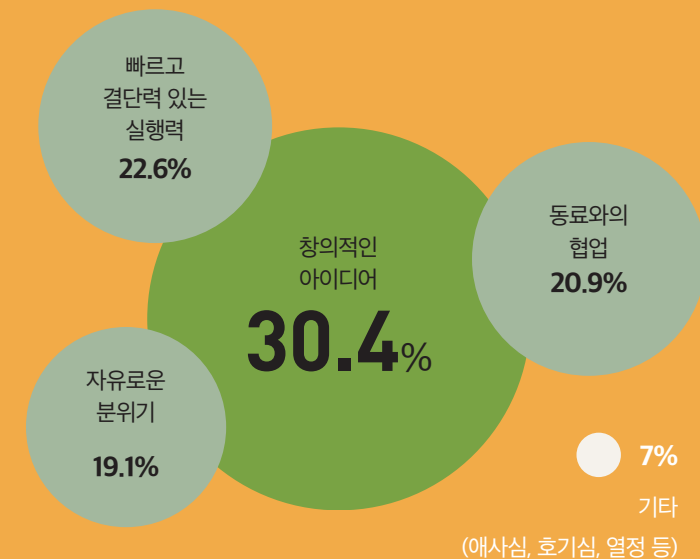
제 통장 잔고를 200억 원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매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자신 있는데...

전남서남권지사 김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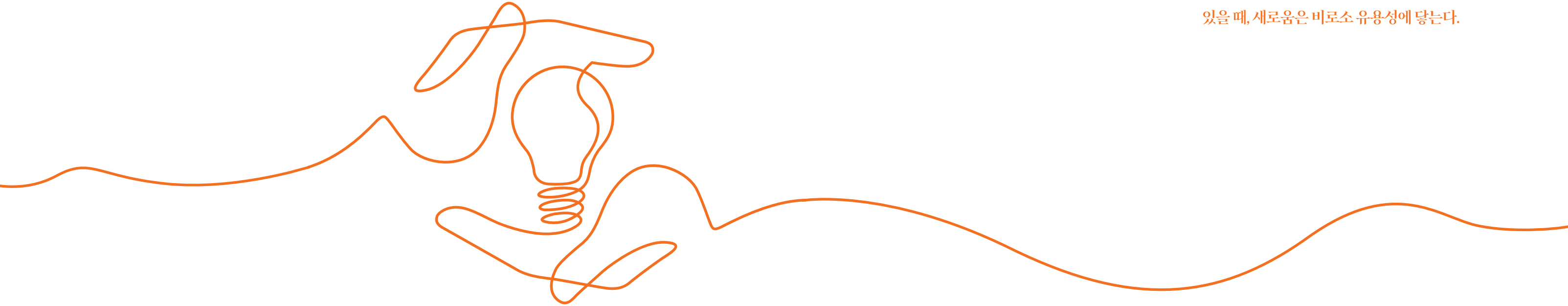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성격을 바꾸고 싶어요. 조금 더 용기 내면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원권지사 유한성

혁신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혁신의 승리는



혁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드는 능력’이다. 문제는 새로움과 유용성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멀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것일 수록(독창적일수록) 유용한 것이 되기 어렵다. 회의실에서 ‘우와!’를 부르는 아이디어가 현장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데’로 끝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몇 해 전 한 가정용 주스 기계가 화제를 모았다. 전용 팩을 넣으면 모터가 힘껏 짜서 신선한 주스를 내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곧, 손으로 짜도 거의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알아챘다. 성능 좋은 모터와 깔끔한 디자인은 새로웠지만, 그것이 돈값을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 증강현실 안경도 비슷하다. 기술은 놀라웠지만, 문제는 가격, 프라이버시, 시선의 부담이라는 현실의 벽이었다. 길거리에서 카메라 달린 안경을 쓰는 게 아직은 어색했다. 또 다른 사례인 세그웨이(Segway) 또한 발명 자체는 대단했지만, 보도, 자전거도로, 법규, 보험 같은 주변 생태계가 따라오지 못하니 ‘도심의 표준 이동 수단’이라는 꿈은 좌절되었다. 이처럼 새롭고 독창적이나, 유용하지는 못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튼스쿨의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Adam Grant)는 여러 실험과 현장 연구에서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인 ‘친사회적 동기’가 창의적 아이디어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서 나오는 ‘내적 동기’만으로는 창의적 사고와 행동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여기에 친사회적 동기가 더해지면 ‘새롭고도 유용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유는 간단하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상대방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며, 이를 통해 정말 쓸모 있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즉, 이타성은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디어의 방향을 바꾸는 힘으로 작동한다. 이타성이 강하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가?”와 같이 새로움만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이 아이디어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와 같이 유용성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이렇게 되면, 혁신의 초점도 “우리 아이디어가 얼마나 기발한가?”에서 “누구의 하루가 실질적으로 더 나아지는가?”로 바뀐다. 이 질문을 놓치지 않을 때, 새로움은 드디어 ‘쓸모’에 닿는다.

‘유용한 창의성’

“이 아이디어가 참신한가?”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를 덜 불편하게 만드는가? 정말 다시 쓰게 될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새로움은 비로소 유용성에 닿는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다음 세 가지에 주목해보자. **첫째, 눈앞의 불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새로움은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유용성은 발바닥에서 나온다. 출근길 지하철 개찰구 앞, 한 손엔 커피, 다른 손엔 가방을 든 채 교통카드를 꺼내려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바로 그 어색함과 불편함이 유용성의 씨앗이다. 카드 위치를 바꾸거나, 휴대폰 인식 위치를 재설정하거나, 컵 홀더를 바꾸는 식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손을 대면 삶이 편해진다.

둘째, ‘좋다’라는 반응보다 다시 사용하는지를 본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일단 “좋네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썼는지가 유용성의 증거이다. 식당에 새로 도입한 주문 태블릿이 있다 치자. 첫날은 모두 써본다. 문제는 둘째 날이다. 직원이 “메뉴 선택이 복잡해져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라고 말한다면, 화면 순서를 바꾸거나 추천 세트를 앞에 놓는 등의 작은 수정이 필요하다. 유용성은 반복 사용에서 증명된다.

셋째, ‘민망함’을 줄이는 것이다. 기능은 좋은데 쓰기 민망하면 사람들은 멀리한다. 길거리에서 얼굴을 스캔하는 기능, 회의실에서 질문을 자동 자막으로 띄우는 기능도 비슷

하다. 좋아 보이지만,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사생활이 걱정되면 손이 안 간다. 그래서 유용한 아이디어는 종종 조용하고 배려 깊다. 켜고 끄는 티가 덜 나고, 실패해도 덜 부끄럽다. 디자인이 예뻐서가 아니라 사회적 리스크를 줄였기 때문에 채택되는 것이다.

새로움은 시선을 끌지만, 유용성은 시간의 검증을 거쳐 습관이 된다.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제품과 서비스는 대부분 처음엔 눈에 띄었어도, 결국엔 없는 듯 자연스러워진 것들이다. 그런 변화는 대개 거창한 기능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수정의 연쇄에서 온다.

“이 아이디어가 참신한가?”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를 덜 불편하게 만드는가? 정말 다시 쓰게 될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새로움은 비로소 유용성에 닿는다.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는 조직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은 기발함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유용성에 닿도록 구성원들의 시선을 돌려주는 일이다.

Special with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영상. 노재준

맑은 물로 열어가는 희망의 여정

2025 K-water 필리핀 해외사회공헌활동

지난 8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해외봉사단은 필리핀을 찾아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그들의 작은 손길이 필리핀
아이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전해본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깨끗한 물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은 건강한 삶을 지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21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안전한 물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식수 환경은 수인성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전염병 확산 가속화, 영양 불균형 문제까지 일으킨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해 2006년 타지키스탄을 시작으로 해외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손길 뻗은 국가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몽골, 솔로몬제도 등 13개국에 달하며,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 급수시설 설치, 위생여건 향상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로써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깨끗한 물을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해 왔다.

필리핀으로 향한 K-water의 발걸음

필리핀은 국가 개발 과정에서 난개발 등에 따른 산업용수 부족, 하·폐수 처리 문제와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필리핀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은 약 40%에 불과하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 평균 수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팜팡가주는 화산재 퇴적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해 지하수에서 WHO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고 있으며, 음용 시설 역시 수동 펌프나 우물에 의존하고 있어 대장균 등의 수인성 질환 위험에 취약하다. 지역 내 학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지난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팜팡가주의 초등학교 다섯 곳을 대상으로 정수처리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도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31일에는 직원 32명으로 구성된 K-water



봉사단이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봉사단은 약 일주일간 필리핀 팜팡가주 지역의 초등학교 네 곳을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위생·안전 교육과 정수처리 체험,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아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던 시간

봉사단이 첫날 향한 곳은 크리스토레이 초등학교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정에 들어선 봉사단을 향해 학생들이 열렬하게 환

영 인사를 건네자, 예상 밖의 뜨거운 반응에 봉사단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SK하이닉스산업용수관리단 문지은 대리는 “처음 만나는 저희를 이렇게 반겨주다니 고맙고, 또 봉사를 앞두고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라며 웃었다. K-water연구원이호현 수석위원은 “설계처에 근무하면서 종종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반겨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도 아이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왔어요.”라며 아이들과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다. 봉사단은 간식, 식료품, 생필품 등이 담긴 키트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칠이 벗겨진 교실 벽에 새롭게 페인트를 칠하는 등 교내 정비에 손을 보탤다. 방독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 힘들 만큼 더운 날씨였지만 봉사단원들은 이마에 맺힌 땀도 잊은 채 작업에 몰두했다.

라위 초등학교와 마리솔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교육이 진행됐다. 위생 교육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위생 습관과 안전한 물에 대한 중요성 등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배우고, 직접 간이 정수기를 만들어 흙탕물이 맑아지는 과정을 체험했다. 자신이 만든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자 아이들은 감탄을 터트리며 기뻐했다.

4일 차에는 필리핀 원주민 아이따족이 거주하는 '예향 마을'로 향했다. 카파스시에 위치한 예향 마을은 오랜 군사지역으로 지하수 오염, 수도관 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또한 부족한 지역이다. 경기서북권지사 안정호 대리는 "실제로 마을에 들어서니 상상 이상으로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수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수인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마을의 첫인상을 말했다. 이곳에서 봉사단은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고, 비석치기·팽이치기·딱지치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함께 즐기며 색다른 추억을 쌓아 나갔다.

희망을 새기고, 미래로 향하다

봉사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5일에는 구에고 초등학교에서 기증식이 개최됐다. 한국수자원공사 봉사단, 구에고 초등학교 마리



Mini-Interview

경영혁신실
김희연 차장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에서도 우수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해외사회공헌활동에서 그간 쌓아 온 역량을 발휘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양강댐지사
김경민 대리



제 손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큰 보람을 얻고 돌아가요. 우리로 인해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곳곳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됐어요.

구미권지사
이동현 대리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을 제가 소극적으로 대할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 추억이 많이 쌓여서 헤어지기 아쉽더라고요. 한 학생에게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 볼 때마다 이 순간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안 피네다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네다 교장은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지원으로 필리핀 현지 학생 1만 2천여 명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정전으로 인한 수업 중단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증식을 끝으로 모든 봉사 일정을 마친 봉사단원들은 그간 정들었던 현지 학생들과 인증사진을 남기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 주요 물 인프라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гат담 수력발전 현대화사업(246MW)을 통해 2014년부터 장기간 전력 안정화와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뉴클락시티 상하수도 통합관리 사업에서는 필리핀 최초의 지하 저류 댐과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을 도입해 기후위기 대응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는 글로벌 물기업으로서 축적된 기술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QR코드를 스캔하여
2025 K-water
필리핀 해외사회공헌활동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솔로몬제도에서 전해온
또 하나의 나눔 이야기



한국수자원공사는 솔로몬제도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은 솔로몬제도의 첫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조달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사는 티나강 수력발전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해외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수력발전사업을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인 THL을 통해 과

달카날주 축구협회에 후원한 것이 한 사례다. 과달카날주 축구팀은 올해 열린 솔로몬컵에서 4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2일에는 티나담 발전소 부지 인근에서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의류와 신발 등 약 16상자를 티나강 유역 4개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티나강 수력발전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을 통해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포항의 심장을 뛰게 하는 포항권지사

포항권지사는 지역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복합사업장이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곳에 흩어져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수타벅스가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수타벅스가 있어 더욱 특별했던 포항권지사의 하루를 담았다.



포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다

철강산업의 메카 포항에서 공업용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심장과도 같다. 이에 포항권지사는 철강공단에 연간 4,800만 톤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인 블루밸리 산업단지 정수장도 운영해 국가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이밖에 영천댐, 안계댐, 감포댐 등 3개 용수댐을 통해 포항, 경주, 영천 3개 지자체 84만 명 시민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지역 물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하수수탁사업과 하수재이용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까지 폭넓게 수행하며 지역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복합사업장의 특성상 79명 직원이 여러 사업장에 흩어져 있어 얼굴을 자주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직원들은 이를 다채로운 경험을 통한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K-water의 전문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사 인근에 카페가 없다는 것. 선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전민규 인턴과 전가린 인턴은 커피 한 잔 직접 대접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타벅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전민규 인턴은 “첫 사회생활에서 선배님들께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마침 선배님들께서 수타벅스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했는데, 제 진심이 통했나 봐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직원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오늘

수타벅스를 향한 포항권지사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려 여섯 번의 시도 끝에 비로소 수타벅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드디어”를 외쳤다. “다른 지사에서 수타벅스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거든요. 전가린 인턴과 전민규 인턴이 함께 신청해준 덕분에 드디어 우리 지사에도 선물이 찾아온 것 같아요.”라며 김선호 과장이 그간 수타벅스를 기다렸던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직원들이 한 손에 텀블러를 들고 수타벅스 앞으로 모였다. 바삭하게 튀겨진 핫도그를 한 손에 들고 뒤를 도니 초록 산세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뷰가 펼쳐졌다. 이 경치는 포항권지사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산 중턱에 위치해 멋진 풍경을 자랑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포항권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 보세요.



하는 반면, 인근 편의시설이 부족한 포항권지사는 직원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방울다방’이라는 편의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주호 차장은 “평소 점심시간이면 방울다방에서 직원들과 끈끈한 정을 쌓곤 했는데, 오늘은 수타벅스 앞에서 맛있는 음료와 간식을 나눠 먹으니 기분이 색다르네요!”라며 만족감을 전했다. 박찬희 사원은 “최근 운동을 하느라 밀가루 음식을 좀 멀리했는데, 오랜만에 핫도그를 먹어서 더 맛있어요!”라고 말했다.

하반기로 접어든 2025년, 포항권지사의 올해 남은 목표 또한 ‘차질 없는 용수 공급’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포항권지사를 응원한다.



Mini-Interview



김선호 과장

포항권지사는 사랑이 넘치는 지사예요. 든든한 직원들과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죠.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포항권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가린 인턴

선배님들께서 바쁜 업무로 힘들 텐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한 건 없는지 항상 먼저 신경써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수타벅스를 즐기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AI 시대의 물관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기후 위기로 극단적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홍수, 가뭄, 수질 오염 등 물관리 여건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물 산업에서도 데이터 분석 등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주목받고 있지만, AI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AI 기술로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AI 전환과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을 소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AI 물관리 기술

한국수자원공사는 AI 기술과 데이터 관리전략을 결합한 기술로 물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Digital GARAM+)과 AI 정수장이다.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현실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가상세계를 구축해 수위·유량·기상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를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해 홍수 위험을 예측하고, 댐 수문 방류 등 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AI 정수장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돗물의 생산, 공급 공정을 자율 운영하고, 최적의 에너지 사용관리와 적기 설비 유지보수, 지능형 영상 안전 기술이 융합된 정수장이다. AI, IoT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 등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작업초안 승인을 받으며 글로벌 확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이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AI 물관리 기술을 뒷받침하는 핵심은 데이터 거버넌스다. 데이터 거버넌스란 데이터가 수집·저장·처리·활용·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품질, 보안,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절차, 책임 및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의미한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AI 기술 발전의 필수 조건이자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체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여섯 가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접근성·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이 사용자에게 보다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 비전 수립과 조직 정비

데이터 기반 물 관리 고도화를 목표로 최고데이터책임자(CDO)와 데이터관리위원회를 두어 데이터 표준·품질·활용 전략을 주도하고, 최고AI책임자(CAIO)를 임명해 AI 전략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합 관리한다.



2.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 용어·코드·메타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자동화된 품질 검증 도구와 정기 점검으로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한다. 향후 AI 친화적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핵심 데이터 선별과 메타데이터 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3.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민감 데이터에 접근 제어와 암호화를 적용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으로 데이터 무결성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국가 보안체계에 따라 데이터를 3가지 등급(CSO: 기밀·민감·개방)으로 분류해 차등적 보안 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4. 데이터 생애주기 전 과정 관리

생산·입력·검증·활용·폐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댐 운영 등 핵심 사업에서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시간 물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5. 데이터 개방과 공유 확대

정부 정책에 맞춰 데이터 개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My Water'와 공공데이터개방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6. 데이터 중심 문화 확산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사내 경진대회, AI PoC 프로젝트 등을 통해 데이터 중심 문화와 AI 혁신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의 주요 기능



메타데이터 관리

- AI 모델이 데이터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물관리 전문지식이 반영된 데이터셋의 학습 효율성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



보안 및 접근 제어

- 데이터 허브는 민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다층적 보안 체계를 적용
- 데이터 암호화, 접근 권한 관리, 데이터 사용 추적 시스템을 통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



생성형 AI 서비스 연계

-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
- 시민, 연구자, 재난 담당자가 물관리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제공
- 예) 자연어 쿼리를 통해 데이터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



외부 플랫폼 연계

-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및 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해 데이터 허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 데이터 생태계 확장 촉진

AI 학습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허브

한국수자원공사는 하루 평균 약 74억 건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중 실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약 2억 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방대한 데이터는 수자원, 수도, 수질 등 업무 분야별 시스템이 제각각 다른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AI가 이를 통합하여 활용하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데이터 간 서로 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벽을 허물고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AI 학습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허브다.

데이터 허브가 마련되면 AI가 학습할 수 있는 자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복잡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위해 KT와 190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데이터 허브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기존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AI 기술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AI 기반 홍수 예측, 수질 관리, 댐 운영 최적화 등 다양한 물 관리 분야에서 통합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모든 물정보는 My Water에서 한번에”



My Water를 통해 하루 약 60만 건의 가공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일 평균 5천 명의 국민들이 방문해 지역의 수질, 요금 단가 등 물 관련 생활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데이터가 만드는 AI 역량과 기업경쟁력

오늘날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홍수 예측과 환경 분석을 수행하고, 아마존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추천 시스템을 정교화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데이터가 AI 역량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경영 전략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전사 차원의 전략 기획단 운영으로 거버넌

스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허브를 통해 AI 학습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해 홍수·가뭄·수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메타데이터 정비로 AI의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고, 클라우드 기술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물 관리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 재난 담당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며 글로벌 물관리 표준을 선도할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AI 전환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탄금호의 물길을 가르는 열정의 레이스

제22회 물사랑 전국조정대회

탄금호 위로 스타트 총성이 울리자 선수들이 일제히 물길을 가르기 위해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의 선수들의 땀방울이 빛났던 제22회 물사랑 전국조정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일간 68개의 레이스, 수상 스포츠 저변 확대의 장

지난 9월 14일 충주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이 뜨거운 레이스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올해로 제22회를 맞은 물사랑 전국조정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 및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 등 총 48개팀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들은 3일간 33개 종목, 68개 레이스를 통해 그간 갈고 닦아온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했다.

물사랑 전국조정대회는 2003년 안동댐에서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오며, 국내 수상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조정협회의 주최로 열렸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남자일반부 한국수자원공사팀, 여대 및 일반부 충주시청팀, 남자대학부 한국체육대학교팀, 남자 고등부 성서고등학교팀, 여자고등부 충주여자고등학교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조정 종목의 대중화를 위해 2002년 조정선수단을 창단했다. 이봉수 감독, 안효기 코치와 함께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조정선수단은 '2025 아시아 비치스프린트 조정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내외 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조정 위상과 종목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대표 물관리 기관으로서 탄금호 등 지역의 댐 주변 명소가 국민들을 위한 레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쉼터이자 지역의 미래를 여는 자산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Newsroom

2025 October Vol. 691

01

국내 첫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임하댐 수상태양광 준공

지난 9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안동시 임하다목적댐공원에서 47MW 규모 수상태양광 준공식을 개최했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지역과 주민이 협력해 조성한 국내 1호 집적화단지이자 교차 송전을 적용한 국내 첫 모델로 재생에너지 확산의 전환점으로 주목받는다.

이번 사업에는 마을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투자수익 및 지원사업 등으로 향후 20년간 220억여 원의 발전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는 에너지 전환 동력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구조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동의 상징인 무궁화꽃을 형상화하여 수상태양광 패널을 디자인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교차 송전 방식을 도입해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돌파구도 마련했다. 임하댐 수력발전을 위해 이용하던 기존의 전력 계통을 활용하여 낮에는 수상태양광을, 밤에는 수력발전을 교대로 송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안동시 2만 6천 가구가 5년간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 308GWh가 발전 대기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본사 발전통합 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계통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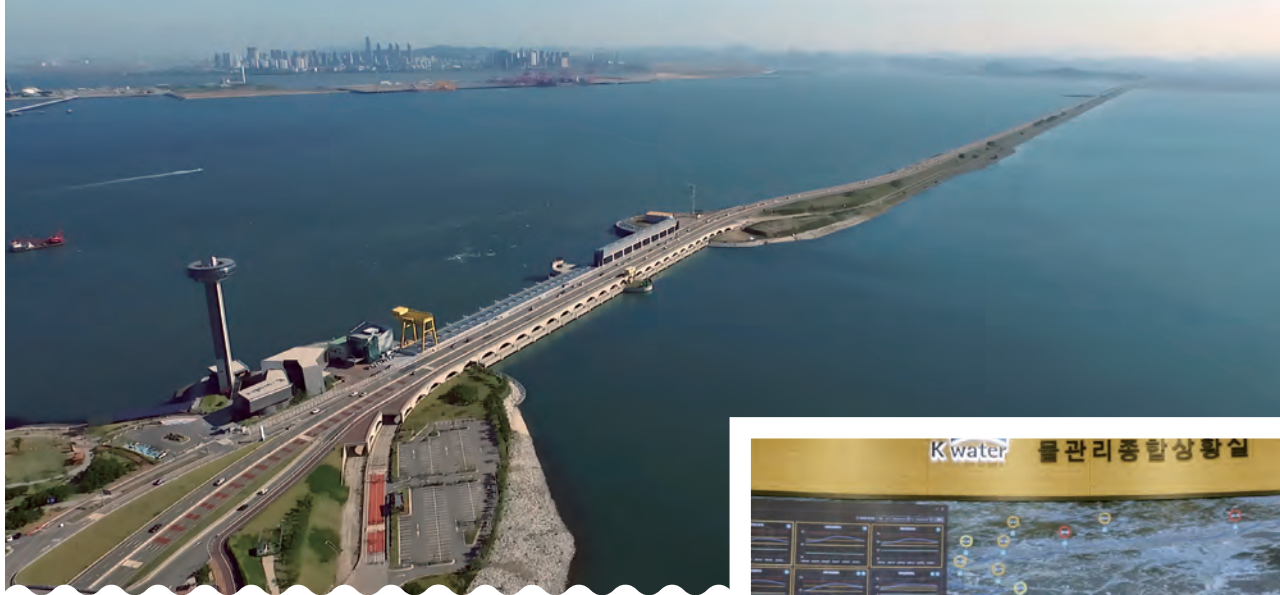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신풍습지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 착공식 개최

지난 9월 2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삼성전자가 전남 장흥댐 상류 신풍습지에서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워터 포지티브'란 통상 기업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 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물 분야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번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으로 인해 신풍습지를 개선하여 인근의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수자원의 생태복원과 주민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이로써 지역 생태환경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물 순환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세 기관이 지난 2024년 11월 워터 포지티브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착공으로 이어진 것이며, 연내 완성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과학적 조사와 기술적 지원 등 워터 포지티브 활동에 실질적인 보탬을 제공할 예정이다.





03 '안전-재생에너지-AI' 중심의 조직개편 강화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전,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다. 이로써 최근 사회 전반에서 강화된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에너지 대전환과 AI 중심의 디지털 혁신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개편으로 안전 최우선 기업문화 정착을 이끌 '안전본부', 물 기반 청정에너지로 국가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재생에너지본부', 물관리 분야 AI 전환을 전담할 'AI추진단'이 새롭게 격상·강화된다. '안전본부'는 기존 부서 단위 조직을 본부로 확장하여 건설·품질·재난·산업안전 등 기능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재생에너지본부'는 수력·

조력·수열·수상태양광 등 물 기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RE100 이행을 선도한다. 'AI추진단'은 물관리 전 영역에 AI를 확산해 전사적 AI 전환을 이끌고, 물 분야 혁신 솔루션 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 확립,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물 분야 AI 3대 강국 실현을 추진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응답하고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반을 확보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04 소방청과 재난 공동대응 강화



지난 9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소방청과 함께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대형화재·산불 대응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2024년 체결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소방청 간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의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전국의 상수도 관망 정보와 연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정수장 등 광역상수도시설과 지자체의 물관리 시설 내 소방용수 충수 설비, 소화설비의 위치와 수량 등의 운영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AI 챗봇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대형 산불 발생 현장 등에서 소방용수의 신속한 확보를 지원해 재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05 공군 장병을 위한 모듈형 정수설비 도입



지난 9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군 장병들의 식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군과 '모듈형 정수설비 도입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모듈형 정수설비는 컨테이너 등 시설 내부에 정수 설비를 집약적으로 구성하고,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고강도 설계를 적용해 제작된다. 이에 따라 도서 지역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부대에도 운반과 설치가 용이하며, 신속한 이동설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2027년까지 최북단 백령도를 포함한 상수도 미공급 16개 공군부대에 총 64억 원을 투입해 모듈형 정수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수설비 설계, 제작 등 기술적 업무를, 공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강이 마르면, 떠난다

강릉에서 마주한 기후붕괴



황덕현 뉴스1 기자

도시 한복판에서 식수를 사재기하고, 곳곳의 급수가 끊기며, 주민들이 트럭에 실린 물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강원 강릉에서 실제로 벌어진 장면입니다. 강이 마르자 생태계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이동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지역은 올여름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이 10% 안팎까지 떨어지며 약 4만 가구가 제한급수를 경험했습니다. 관광지 예약은 줄줄이 취소됐고, 농업은 물론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강 하류의 저서생물 개체수는 급감했고, 물고기 산란지는 수온 상승과 유속 저하로 기능을 잃었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생태계와 사람 모두에게 위협이었습니다.

강릉의 가뭄은 단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만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극심한 이상기후와 이를 대비하지 못한 기존 수자원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해수 담수화, 빗물 재이용, 지하수 관리 강화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함께, 물 분배 체계와 지역 단위

의 수자원 순환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릉의 가뭄은 '기후 이주'의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주민들은 물탱크를 따라 움직였고, 일부는 장기간 다른 지역으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농업과 관광에 의존하는 지역에서 물 부족은 곧 생계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에서 청년층이 빠르게 빠져나가면 공동체는 사실상 해체됩니다. 지금은 트럭에 실린 물을 따라 이동하지만, 머지않아 생활 기반 자체가 이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천 유량 감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강은 2000~2014년 평균 유량이 20세기 평균보다 약 19% 감소했습니다. 유럽 알프스와 북미 북부 등에서는 봄철 유속 피크가 줄며 강 흐름의 계절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후이주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사헬지대 목축민과 방글라데시 해안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도시로, 국경 너머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이동한 것이 아니

기에 법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이동, 이른바 '기후 난민'입니다. 기후 이주에 대비하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시급합니다. 단순히 주거지를 옮기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계 재건과 지역 회복을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로 인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기후로 인한 물 위기를 막고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뭄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기후변화 시대의 물 위기가 지역 사회 붕괴나 기후이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강릉에서 벌어진 가뭄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경고입니다. 물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의 붕괴를 막는 일은 생태계 회복이자 공동체 생존의 조건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결국 사람이 떠나는 강이 되니까요.

이집트의 심장

나일강에 깃든 오시리스의 숨결



끝없는 모래 바다 위로, 한 줄기 생명이 흐른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의 심장, 그리고 신의 숨결이었다.
풍요의 신 오시리스는 나일강을 따라 문명을 일구었고, 그의 시신은 물결 속에 흩어져 사막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나일강의 물줄기를 따라 오시리스가 남긴 생명의 흔적을 되짚어본다.

혼돈을 품은 강, 문명을 품은 신

태초의 세상은 물로 가득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원초적 물을 ‘누(Nu)’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강이나 바다가 아닌 형태와 질서가 없는, 혼돈의 물이자 모든 가능성과 생명의 잠재력을 품은 심연이었다. 이 속에서 창조신 아툼(Atum)이 솟아올랐고, 그는 공기의 신 슈(Shu)와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Tefnut)를 낳았다. 그리고 이들이 하늘의 여신 누트(Nut)와 대지의 신 게브(Geb)를 탄생시켰고, 하늘과 땅이 분리되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나일강이 탄생했고, 나일강의 신성한 흐름을 따라 대지가 생명을 얻었다.

게브와 누트 사이에서 태어난 오시리스(Osiris)는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인간적인 신이었다. 그는 풍요와 농업,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였으며, 법률과 문명을 정비하여 질서 있는 사회를 구축했다. 또한, 오시리스는 이집트인들에게 평화, 음악, 기쁨 속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포도주를 얻기 위해 포도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서 초록빛 싹이 돌아나고, 사람들은 풍성하게 수확을 즐길 수 있었다. 이집트는 그의 통치 아래 번영과 평화를 누렸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 번영을 질투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남동생, 사막과 혼돈의 신 세트(Set)였다. 세트는 오시리스를 속여 화려한 관 속에 가둔 후 나일강 깊이 던져 버렸다. 오시리스의 죽음과 동시에 나라는 황폐해졌다. 강가는 시들고, 밭은 잿빛으로 변했다. 오시리스 아내 이시스는 하늘과 땅, 강과 사막을 헤매며 그를 찾았다. 이시스는 조각난 오시리스의 몸을 이어 붙이고 숨을 불어넣었다. 오시리스는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기적적으로 나일강의 범람과 함께 다시 생명을 깨우게 됐다.

사막 위로 흐른 신의 숨결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오시리스의 부활로 여겼고, 그 물을 생명의 정수로 숭배했다. 범람의 시기는 농사를 쉬는 시기였고, 이때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와 신전을 건설했다. 불어난 강물은 돌과 목재를 운반하는 운송로가 되었고, 홍수로 쓸려간 농지를 복구하며 건축술과 기하학, 수학이 발달했다.

실제로 이집트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며, 연 강수량은 극히 적다. 그런데도 이집트가 수천 년 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덕분이었다. 나일강은 이집트 농경지의 약 97~98%에 물을 공급하며, 매년 반복되는 범람은 토양에 유기물을 남겨 비옥함을 선사했다. 덕분에 나일강을 따라 농사했고, 문명이 꽃피었다.

범람을 상징하는 신 하피(Hapy)는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지만, 이집트인들은 오시리스를 더 깊이 존경했다. 그들은 나일강의 물을 오시리스의 땀이라 믿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곧 대지의 재생이라 여겼다.

이처럼 오시리스와 나일강은 단순한 신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집트 문명의 철학적 기반이었다. 오시리스의 시신이 남긴 축복은 나일강에 깃들여 사막을 적셨고, 그 물길을 따라 이집트 문명은 영원히 흐르게 됐다. 그 흐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집트의 대지를 관통하며, 고대의 기억을 속삭이고 있다.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이봉주 마라토너와 함께
충주댐 물길 RUN & TRIP

충주댐과 이봉주 마라토너의
40주년

#충주댐40주년 #물길여행
#충주힐링여행



블로그
K-물길여행, 군위 한 바퀴



#군위댐 #화산산성전망대
#삼국유사테마파크 #화본역



X(트위터)

어려운 순간에는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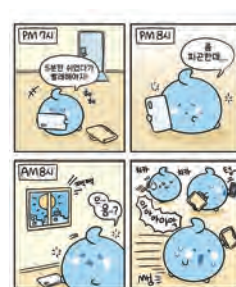
#완벽하지 않아도 돼 #방울이의 긍정마인드



페이스북
가을 산행하기 좋은 명산 추천



#서울북한산 #양양설악산 #원주치악산 #구례지리산



인스타그램

5분만 쉬기로 했는데,
그렇게 됐다



#퇴근 후 루틴 #방울이의 직장생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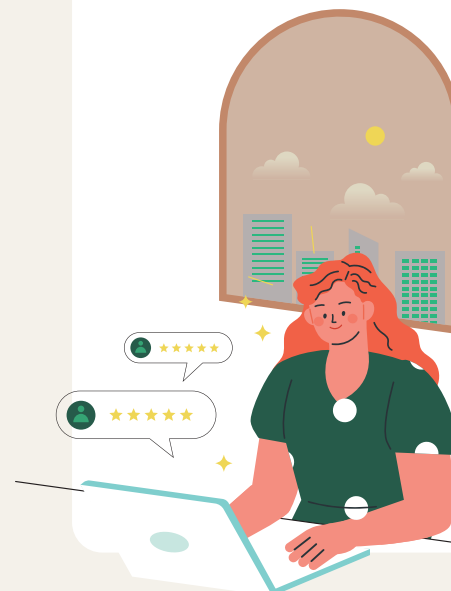
10월호 이벤트 안내

Vol.691

EVENT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10월호 사보 또는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 | |
|--------|------------------|
| 참여방법 |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
| 이벤트 경품 | 메가박스 2인 패키지(5명) |
| 접수 마감일 | 10월 20일 |
| 선물 발송일 | 10월 31일 |



참여하기

EVENT 2

바닷물도 100℃가 되면 끓는다?

무인도에 표류한 당신. 목이 마르는데 마실 거라곤 바닷물밖에 없다.
별수 없이 냄비에 바닷물을 받아 끓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질문! 바닷물도 수돗물처럼 100℃가 되면 끓을까?



- | | |
|--------|--|
| STEP 1 |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
| STEP 2 | 1:1채팅방 클릭 |
| STEP 3 | 정답 및 의견
(정답 및 의견/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 | | |
|--------|------------------------|
| 이벤트 경품 | 스타벅스 간편한 한끼 세트(커피+베이글) |
| 접수 마감일 | 10월 25일 |
| 선물 발송일 | 10월 31일 |



참여하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9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권○진(7355)

대전0시 축제에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모습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과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힘찬 응원 보내겠습니다!



이○효(4984)

저에게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일이었는데, 시대마다 다른 문화와 의미를 지녔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코로나19 이후 동네 목욕탕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경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어요.



이○훈(3867)

케데헌의 인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굿즈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모습에 한국 문화의 저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길 응원해요!



조○현(6499)

이번 수타박스를 통해 제주의 청정 자연이 그저 우연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묵묵히 애쓰는 직원들의 열정과 따의 결과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주를 지키는 수호천사 영원하라~



최○진(7526)

지구 생태계의 변화와 환경 오염, 기후변화로 수질에도 이상이 생기는 지금.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수관리가 필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자와 AI가 함께 운영하는 미래형 정수장이 기대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 YES or NO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티콘 10명



물 없이도 일주일만 버틸 수 있다? 정답은 NO!

우리 몸의 절반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없으면 체온 조절과 혈액 순환, 장기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사람은 물 없이 일주일만 버티기 힘들다.

김○아(3494)	이○라(6225)	장○영(0518)	최○지(8537)
김○정(3040)	이○호(2153)	조○수(1907)	
신○혁(6707)	이○호(9194)	최○욱(2807)	

#방울이 옷 입히기 이벤트

이벤트 경품 업사이클링 키트 5명

권○서(6345)
오○화(7811)
이○린(1170)
차○정(1580)
최○은(3937)



※10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방울이 옷 입히기

여러분의 취향대로 방울이를 꾸며보세요!

방울이의 변신은 무죄!
멋있게 변신한 방울이 모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업사이클링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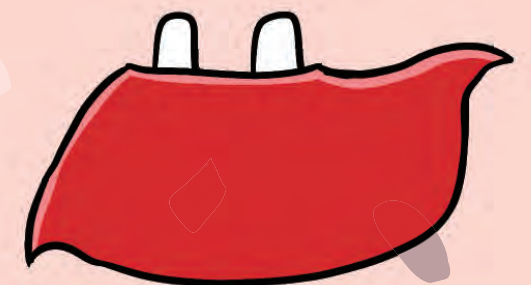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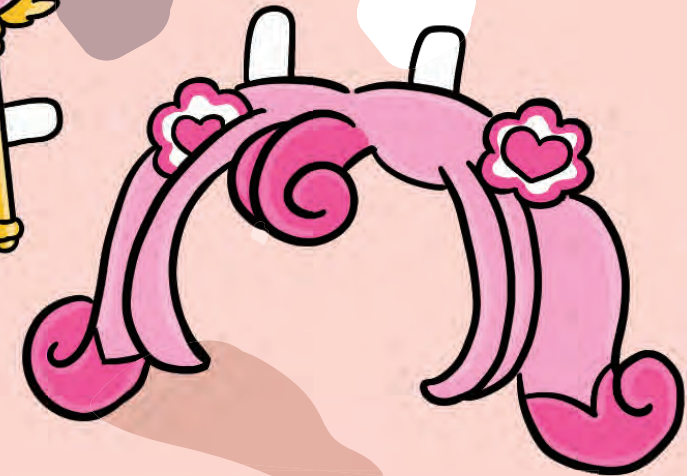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10월 20일
선물 발송 10월 31일

응모하기

경품

업사이클링 키트
(5명)





방울이 옷 입히기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



APEC 2025 KOREA

2025. 10. 27.(월)~2025. 11. 1.(토) 경주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